



클로즈·업

江原道 保社局長 襄 桂 燮 씨

◎ …… 강원도 보사회정의 總帥 襄桂燮씨.

산골 奧地에까지 그의 보살핌은 한치의 빈틈도 없다.

전국에서 산이 많고 奧地가 많기로도 으뜸인 강원도이기에 그만큼 더욱 세심한 배려가 따르기도 하지만 道民의 건강을 돌보는 배국장의 손길은 항상 따뜻하기만 하다.



◎ …… 「우리道는 주민자율방역사업을 정착사업으로 토착화시키고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인 里長에게 소독기등을 배부하여 농가전원에 소독을 실시토록해서 자율방역을 하고 있지요. '82년에도 이미 180萬명을 가구 단위로 책정해서 방역사업을 실시해서 다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 …… 서민적인 모습에서 인자한 아버지 같은 수수함을 느끼게 하는 襄局長은 그의 외모답게 行政을 펴나가는데도 「스무스」한 뉴앙스를 느끼게 한다.

道內 간이상수도급수의 수질검사사업도 도보건연구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며 또한 시·군 보건소에서 빠짐없이 실시하여 도민들이 깨끗한 음료수를 먹어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수질검사요원교육도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 …… 襄국장은 힘주어 말한다.

「健康관리협회 발족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국민개보험에 대비, 이미 3년차 계획으로 도민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읍면, 동당 1개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83년도에는 기본검사 시범사업으로 체위, 기생충검사, 폐결핵검사, 병력조사등을 실시

하여 다음년도 계획에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 먼저 말씀한 기본 체크를 참고삼아서 건협사업에 최대한 협조하겠노라는 裴국장은 기협사업은 잘 되고 있으며 오히려 각급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유기적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

앞으로는 각종 모임, 즉 여성단체등을 활용해서 활발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한다.

◎ …… 裴국장은 직접 강원도에 마라톤 상비군제도를 만들어서 '81년도에는 고등부 종합 9위, '82년도에는 4위, 여자마라톤 고등부는 전국 3위, '82년도의 전국체전때는 12위에서 전국 9위로 부상했다면서 자신이 직접 지휘 감독한 마라톤 상비군을 은근히 자랑하기도 한다.

◎ …… 취미로는 바둑이 4급으로 믿음직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고, 부인 李梅子 여사와의 사이에 1男3女를 둔 다복한 가장.

